

배포 일시	2022. 8. 24.(수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 오송천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상수 (044-201-395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호남선(가수원~논산) 철도 고속화 사업 24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4일 호남선(가수원~논산)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호남선 고속화 사업*은 대전광역시 가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.2km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철도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,
 - * 연장 29.2km, 사업비 7,192억원, 운행속도 250km/h
 - '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(AHP 0.505)하였다.
- 그동안 호남선(가수원~논산) 구간은 일제 강점기(1914년)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전널목이 많고, 이로 인해 속도 저하,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.
 - 본 사업 추진으로 용산에서 출발하여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의 운행 시간이 줄어들어 호남선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 - * 용산~논산(1시간 36분 → 1시간 23분, △13분), 서대전~논산(33분 → 20분, △13분)

-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입체화되고, 급곡선(곡선반경 R=600m 이하)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.
- 또한, KTX 열차*가 논산훈련소 바로 앞에 있는 신연무대역까지 용산에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어 국군장병을 포함한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, 기차버스·택시 등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.

* 운행횟수 : 월·화·목, 2회/일(월·목요일 입소, 화요일 면회)

□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설계,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'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"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5대 간선축* 중 미개량 구간인 호남선(가수원~논산) 구간의 선형 개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고속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"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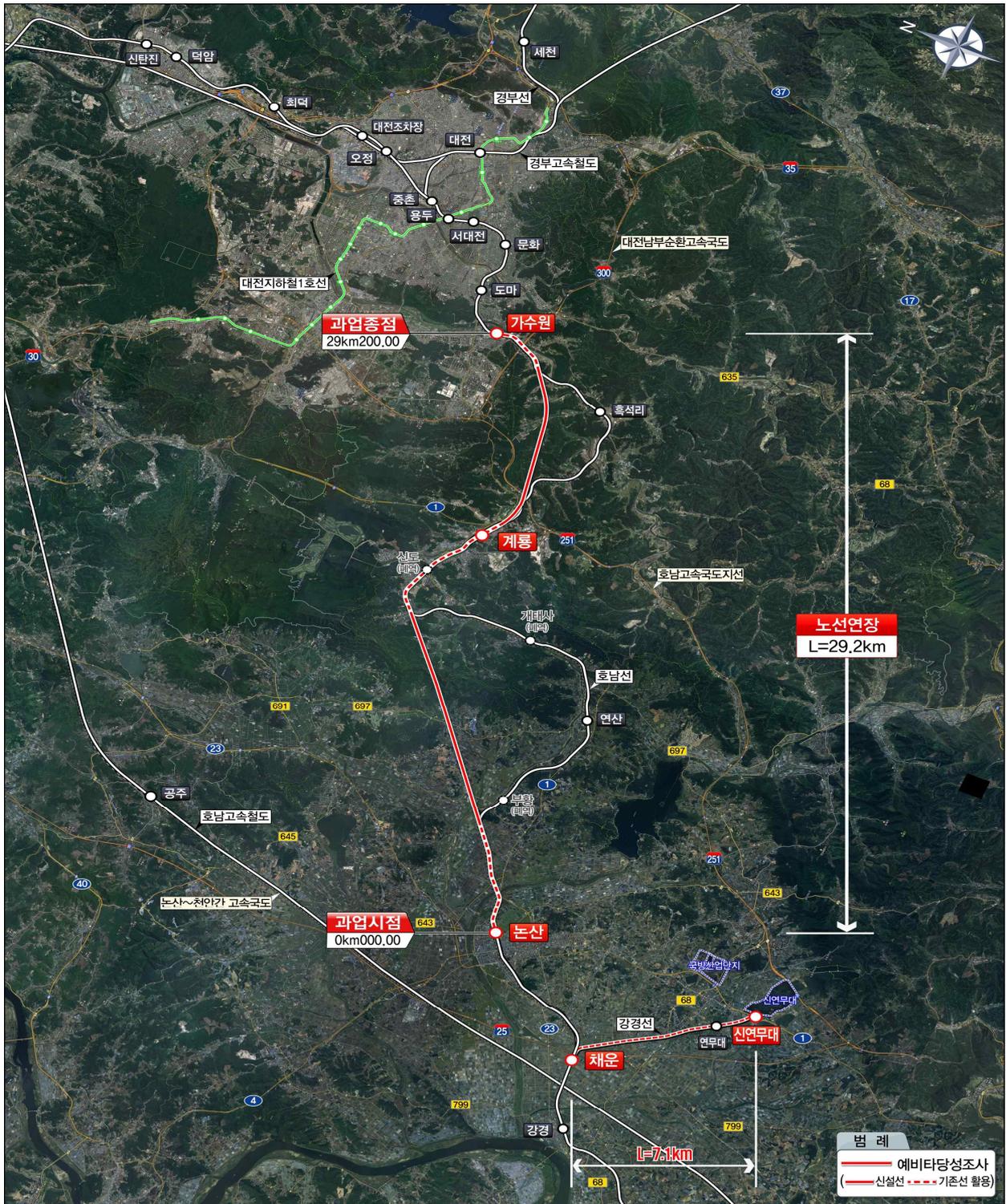
* 5대 간선축 : 경부선, 호남선, 전라선, 경전선, 중앙선

- "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참고 1

호남선(가수원~논산) 고속화 사업 개요 및 노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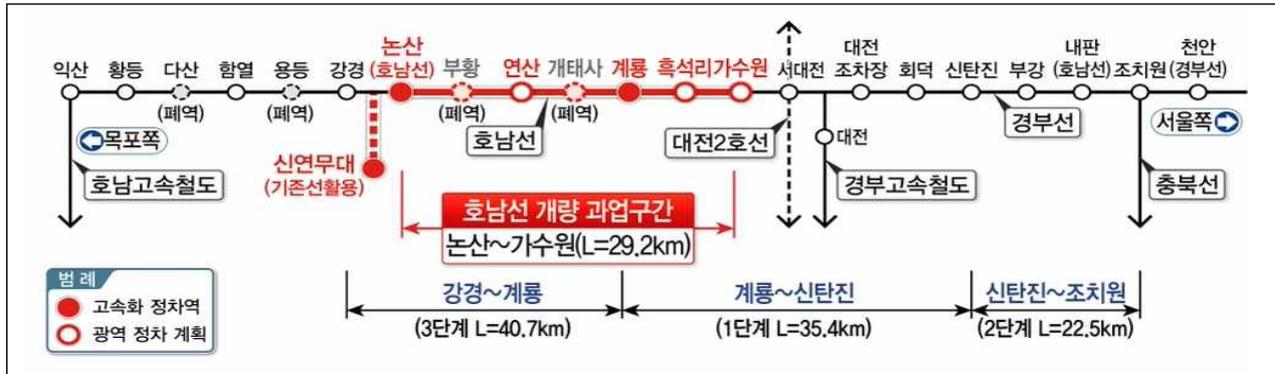
- ◇ (사업구간) 가수원 ~ 논산 간 29.2km
- ◇ (총사업비) 7,192억원(예비타당성조사 기준)
- ◇ (운행속도) 설계속도 250km/h



참고 2

호남선(가수원~논산) 고속화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

- 사업내용 : 호남선 가수원~논산간 29.2km 복선전철 고속화
- 총사업비 / 사업기간 : 7,192억원(전액국비) / 8년

□ 추진 경과

- '16. 6. 27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(신규사업)
- '19. 8. 21 :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(기재부)
- '19. 9. 24 :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(KDI)
- '22. 8. 9 : SOC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(기재부)
- '22. 8. 24 : 재정사업평가위원회 (예타 통과: B/C 0.61, AHP 0.505)

□ 향후계획

- '22.下 기본계획 착수
- '23.下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- '25.下 공사 착수(~'30년)